

사회복지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김태형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Happiness of Social Welfar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ae Hyeong Kim

Dept. of Social Welfar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6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학생 가족기능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from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on their happines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For this, a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 from November 2020 to April 2021 from which 260 sets of data were used.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First, the analysis showed that family function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Second,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Third,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and at the same time,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happiness, so self-estee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ractical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mental health in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Family Functioning, Happiness, Self-Esteem, Mediating Effect, University Students

본 논문은 2022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Tae Hyeong Kim(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sodoi2001@naver.com

Received June 17,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July 18,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1. 서론

긍정심리학에서의 행복감은 자신의 기대나 희망,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 인지적 평가로 결정되는 삶의 만족감과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인 정서적 안녕감을 말한다[1].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Seligman (2002)에 따르면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2], 이는 즐거운 삶(pleasant life), 적극적인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으로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다[2].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할 수 없어[3]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및 욕구,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행복의 조건과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화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4]. 이에 본 연구는 생애 주기별 특성에서 인생의 황금기이자 학업 및 취업 관련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 대인관계 및 사회진출 등에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두어 행복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은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새로운 발달 과업의 수행과 환경의 적응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전공역량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별 시기라 할 수 있다 [5,6].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학업 및 대인관계 등 사회적 활동의 총체적 제약을 경험하면서 대학생들은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이에 사회적 차원에서 대학생의 행복감 수준을 확인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행복은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이며, 행복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7]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본주의적 현신과 돌봄이 핵심 가치인 사회복지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대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행복감 수준이 저하되면 전공학문에 대한 관심 저하, 대학생활 적응[8,9], 더 나아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적응까지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 수준에 대한 확인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현장의 핵심 전달체계라 할 수 있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행복에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0],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가 핵심인 간호전공생의 행복감 관련 연구들[7-9]에 비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복지전공생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희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전공과정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실천현장에서 적응의 필요조건으로 행복감 증진에 대한 연구가 소원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한 영향요인들은 긍정심리학의 통합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통합이론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특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3].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및 외재적 자원의 특성이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여건으로 '가족기능',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여 행복감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기능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행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개념[12]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13-15]. Diener와 Seligman (200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중 행복도가 높은 상위 10%집단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관계는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지지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6]. 특히 가족이 기능을 잘할수록 각 구성원은 활동적이고 정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며, 보다 사회성이 풍부하며 바람직한 인성 특성향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17]. 이러한 가족기능은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족기능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요인을 유의미한 변수로 보고[18]하고 있으며, Sari 외(2018)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9]. 그 외 Xiang 외 (2020) 연구에서 가족이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0]. 더불어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로는 Kelly 외(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가족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며[21], 조선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2].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23]을 말하며,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감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언급하고 있다[24].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설명한다[3]. 이러한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은 실제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먼저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Ryan과 Deci(200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하게 된다고 보고[3]하고 있으며, 터키 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대한 경로 모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25]. 더불어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 178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공감능력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고[26]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의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27]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행복감과의 관계[25], 경제 상태와 행복감과의 관계[28],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29] 등의 연구들에서 매개변수로 설정되어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외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선행연구들[13,15]을 참고하여 통제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년, 거주형태, 파트타임 여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생애발달주기 상 진로 설정 및 취업, 자아성찰 등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대학생시기에는 보다 주체적인 삶의 계획수립과 긍정적 정

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통한 분석을 통해 대학생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 연구가설1.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2. 가족기능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3. 가족기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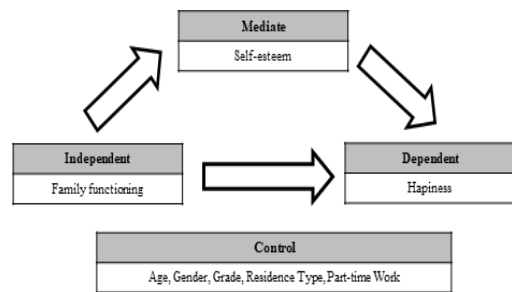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천안, 부산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며,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전 연구목적, 문항, 소요시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 후 실시되었다. 이에 부적합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측정도구

2.4.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행복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Hills와 Argyle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측정 척도(OHQ: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Hills와 Argyle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였으며, 안미나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6으로 확인되었다.

2.4.2 독립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가족기능을 설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III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30]. 가족응집성은 총 10문항(홀수문항)으로 정서적 유대, 도움과 의논, 여가시간 및 친구공유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적응성(짝수문항)은 가족 지도력, 훈육, 통제 정도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중운, 김미정(2016)의 연구[31]에서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3으로 확인되었다.

2.4.3 매개변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Rosenberg(1979)가 개발한 10문항[32]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사용한 오승환(2001)의 연구[33]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0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5로 나타났다.

2.4.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년, 거주형태, 파트타임 근로여부가 사용되었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이며, 성별은 여자=0, 남자=1, 학년은 1-2학년=0, 3-4학년=1, 거주형태는 가족과 분리해서 생활하는 경우=0,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1, 파트타임 근로는 현재 근로하고 있지 않은 경우=0, 근로하고 있는 경우=1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SPSS 25.0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34]의 3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기능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후,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기능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후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기능,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투입하여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다. 3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능의 직접효과가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며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매개효과와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자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ec.	N	%
Gender	male	85	32.7
	female	175	67.3
Age	M=22.01 SD=2.085		
Grade	1	74	28.5
	2	35	13.5
	3	98	37.7
	4	53	20.4
Major	Humanities	78	30.0
	Social Science	159	61.2
	Science& Engineering	1	.4
	Etc	22	8.4
Residence type	With family & relatives	196	75.0
	Lodgings	55	21.1
	Dormitory	8	3.1
	Etc	2	.8
Parttime work	yes	88	33.8
	no	172	66.2

3.2 관련변수 기술통계

연구의 가설 검증에 사용될 주요 변수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in	Max	M	SD
Family functioning	260	1.40	5.00	3.25	.728
Self-esteem	260	1.20	4.00	2.84	.485
Happiness	260	1.07	4.03	2.67	.585

3.3 주요변수 상관관계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3. Correlation

	Family functioning	Self-esteem	Happiness
Family functioning	1	.425**	.482**
Self-esteem	.425**	1	.745**
Happiness	.482**	.745**	1

***p<.001, **p<.01, *p<.05

3.4 가설검증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의 VIF 계수가 1.03~2.65로 그 값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34]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의 1단계로,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자아존중감의 변량(variance)을 20.7%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능($\beta=.412$, $p<.001$)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들 인지하는 가족기능

의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Self esteem

variable		step 1	
		β	t
Control	age	.015	.167
	gender	.146	2.403*
	grade	-.006	-.067
	residence type	-.013	-.235
	part-time work	-.049	-.844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412	7.264***
R^2		.207	
Adj R^2		.189	
F		11.038***	

***p<.001 **p<.01 *p<.05

2단계 분석은 대학생의 가족 기능을 독립변수로,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행복감의 변량을 26.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능($\beta=.477$, $p<.001$)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친밀감,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서 성별($\beta=.157$, $p<.01$)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집단일수록 행복감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5.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Happiness

variable		step 2	
		β	t
Control	age	-.074	-2.868
	gender	.157	4.053**
	grade	-.036	-2.334
	residence type	-.059	-1.552
	part-time work	-.040	-.957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477	3.701***
R^2		.261	
Adj R^2		.244	
F		14.926***	

***p<.001 **p<.01 *p<.05

3단계 분석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우울의 변량을 약 59.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beta=.650$, $p<.001$)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가족기능($\beta=.210$)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높아질수록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행복감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Self esteem and Happiness

variable		step 3	
		β	t
Control	age	-.083	-1.282
	gender	.062	1.407
	grade	.040	.637
	residence type	-.051	-1.240
	part-time work	-.008	-.196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210	4.709***
Mediate	Self esteem	.650	14.448***
R^2		.596	
Adj R^2		.585	
F		53.116***	

*** $p<.001$ ** $p<.01$ * $p<.05$

3.5 Sobel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분석 결과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결과,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Z값이 6.456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7. Result of Sobel Test

pathway	Z	p
Family functioning → Self Esteem → Happiness	6.456	<.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천안, 부산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26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자 하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도적, 실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긴밀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능과 행복감을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18,19,3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가족이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발달 상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면서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진다[18]. 이에 가족기능은 대학생의 성인기로의 안정된 심리적 적응 및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학과 학생 상담 및 지도 시 부모 및 가족에 중점을 둔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신입생 단계부터 가족구조 및 관계에 대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학생 별 1대 1 상담이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제 가족구조에 따라 개인이 인지하는 행복감의 수준이 다른지,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기능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의 결과[21,22,36]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능적 가족기능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자녀는 대학생활 적응은 물론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준비행동에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 집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대학차원의 개인의 자아존중감 사정 및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기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긍정적 가족기능 인식이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26,27,37]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으며,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내적자원의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회복지대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정신건강 차원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이 주된 업무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역량임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에 사회복지대학생의 전공 및 취업 역량으로서 행복감 증진을 위해 학년별 대학생 활 적응 및 진로 탐색 상담 과정을 개설[38]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인지적 관점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사회복지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의 개념을 확인시켜 주고, 이를 점검하여 수준별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자면, 첫째, 독립변수인 가족기능 문항이 '가족 간의 역동성' 등 가족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측정문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도 추후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시간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시간에 특화된 개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A. L. Duckworth, P. D. Quinn, M. E. Seligman,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4, No.6, pp.540-54, 2009.
DOI: <https://doi.org/10.1080/17439760903157232>
- [2] M. E. Seligman,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002, pp.3-12.
- [3] S. M. Kwon, Positive Psychology, Hakjisa, 2015, pp.120-130.
- [4] J. R. Jun, K. Choi, "A Study on the Happiness Experience of Male College Students Using Photo Voice Methodology",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9, pp.977-1002, 2021.
- [5] J. H. Kang, A. R. Bak, S. T. Han,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5, pp.289-297, 2020.
DOI: <http://doi.org/10.21184/ikeia.2020.7.14.5.289>
- [6] D. Y. Oh, "Factors to Affect Real-Time Remote Clas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Sustain Class of University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0, No.3, pp.79-107, 2020.
DOI: <http://doi.org/10.34226/gcl.2020.10.3.79>
- [7] G. H. Kim, K. H. Kim,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in first year wome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2, pp.149-157, 2012.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2.21.2.149>
- [8] E. K. Byun, M. Y. Kim, "Effects of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1, pp.167-174, 2022.
- [9] E. Y. KIM, K. S. Lim, "The effect of stress on the happiness index of nursi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381-391, 2017.
DOI: <http://doi.org/10.14400/JDC.2017.15.12.381>
- [10] S. Y. Mun, I. S. Choi,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ocial Worker",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25, No.1, pp.305-327, 2011.
DOI: <http://doi.org.10.18398/kilgas.2011.25.1.305>
- [11] M. S. Kim, B. D. Sohn,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ctivity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ation in Adolescents: Application of Development Asset Model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PYD)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6, No.12, pp.425-453, 2019.
DOI: <http://doi.org/10.21509/KJYS.2019.12.26.12.425>
- [12] J. E. Seo, H. J. Kim, "Influences on Family Functioning: A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20, No.3, pp.457-486, 2012.
DOI: <http://doi.org/10.21479/kaft.2012.20.3.457>
- [13] Y. E. Lee, Y. N. Jang,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During Clinical Practicum,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8, pp.646-657, 2018.
DOI: <http://doi.org/10.5392/JKCA.2018.18.08.646>
- [14] S. K. Choi,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on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5, No.10, pp.143-150, 2020.
DOI: <http://doi.org/10.9708/jksoci.2020.25.10.143>

- [15] D. J. Park, S. M. Kim,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7, pp.359-369, 2021.
DOI: <http://doi.org/10.14400/JDC.2021.19.7.359>
- [16] E. Diener, M. E. Seligman,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Vol.13, No.1, pp.81-84, 2002.
- [17] J. A. Song, J. S. Jang,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5, No.1, pp.119-144, 2010.
- [18] I. Y. Cho,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3, pp.118-128,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3.118>
- [19] E. P. Sari, W. Dahlia, "Family functio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adolescents", *MOJPC: Malaysia Online Journal of Psychology & Counselling*, Vol.5, No.1, pp.43-51, 2018.
- [20] G. Xiang, Q. Li, X. Du, X. Liu, M. Xiao, Chen, "Links between family cohe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and early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and hope", *Current Psychology*, Vol. 40, No.1, pp.1-10, 2020.
DOI: <https://doi.org/10.1007/s12144-020-00795-0>
- [21] K. Gorbett, T. Kruczek, "Family factors predicting social self-esteem in young adults", *The Family Journal*, Vol.16, No.1, pp.58-65, 2008.
DOI: <https://doi.org/10.1177/1066480707309603>
- [22] J. H. Park, J. M. Lee, K. H. Kim,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Vol.32, No.2, pp.163-191, 2017.
DOI: <http://doi.org/10.18013/jnar.2017.32.2.006>
- [23] S. K. Choi,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on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5, No.10, pp.143-150, 2020.
DOI: <http://doi.org/10.9708/iksci.2020.25.10.143>
- [24]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1981.
- [25] T. Dogan, T. Totan, F. Sapmaz, "The Role of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Self-Efficacy, and Affect Balance on Happiness: A path model", *European Scientific Journal*, Vol.9, No.20, 2014.
DOI: <https://doi.org/10.19044/esj.2013.v9n20p%25p>
- [26] Y. J. Lee, G. J. Oh,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regulation, and Empathy on Happi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12, pp.1213-1222, 2019.
DOI: <http://doi.org/10.35873/aimahs.2019.9.12.106>
- [27] E. J. Oh, G. G. Jo, Y. K. Jung,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6, pp.2583-2596, 2020.
- [28] M. S. Yoon, M. S. Le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2, pp.397-413, 2012.
- [29] M. R. Choi, I. H. Lee,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2, No.2, pp.363-383, 2003.
- [30] Olson. D. H,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mily Social Science, 1985.
- [31] J. W. Kim, M. J.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haracter-Strengths and Self-Efficacy i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2 pp.1035-1052, 2016.
- [32] M. Rog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33] S. H. Oh, *A Study on Determinations of Adolescent's Adaptation in Low Income Broken Family*,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p.56-67, 2018.
- [34]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5] I. S. Song, D. A. Hong, H. S. Park,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Happines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8, No.4, pp.579-598, 2013.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13.18.4.579>
- [36] T. H. Kim,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 pp.258-266, 2022.
DOI: <http://doi.org/10.5762/KAIS.2022.23.1.258>
- [37] Y. J. Lee, S. y.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3, pp.371-379, 2021.
DOI: <http://doi.org/10.15207/JKCS.2021.12.3.371>
- [38] B. Hood, S. Jelbert, S. R. Santos, "Benefits of a psychoeducational happiness course on university student mental well-being both before and during a COVID-19 lockdown", *Health Psychology Open*, Vol.8, No.1, 2021.
DOI: <https://doi.org/10.1177/2055102921999291>

김 태 형(Tae Hyeong Kim)

[정회원]



- 2010년 10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9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2월 ~ 2010년 2월 :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사회복지사
- 2020년 9월 ~ 현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 및 의료사회복지, 청소년, 정신건강, 호스피스